

“31년 공직 마침표...지역 발전 응원하겠다”

●우흥섭진도부군수 명예퇴직

1994년 7급 공채로 공직자 첫발...‘행정 전문가’ 명성 풍부한 아이디어·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규모 사업 성과

“31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지만,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진도군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우흥섭(사진) 부군수가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며 명예퇴직했다.

우흥섭 부군수는 완도 출신으로 1994년 7급 공채로 완도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신안군 해양수산과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우 부군수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환담을 나누고

고 진도군청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했다.

그는 지난해 1월2일 제31대 진도부군수로 부임해 1년6개월 동안 진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기업가적 마인드로 지난해 1천358억원, 올해 964억원의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연평균 공모 사업비의 4배 이상이다.

특히 풍부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도군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남형 균형



발전 300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수산중자 실용화센터 건립사업 ▲김 산업 진흥구

역 지정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기후변화, 인구 늘리기, 오염수 대응 등 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성과향상 TF팀을 운영하고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과 시책 일몰제, 성과관리제 등 신규 제도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인구 유입과 생산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남군, 완도군과 함께 ‘해안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안진 프로젝트는 해남·완도·진도가 관광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이 힘을 합친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우흥섭 부군수는 “1년6개월간 동고동락한 진도군청 가족들과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31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늘 진도군 곁에서 함께 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광주시, ‘소목장 무형유산’ 임종철 명장 인정

광주 증심사, 나주 불화사, 합천 해인사 등 사찰 찰초를 제작한 명장 임종철(사진) 선생이 광주시 ‘소목장’ 무형유산으로 인정됐다.

광주시는 1일 “시 무형유산 위원회가 전문가 조사, 인정 심의 예고 등을 거쳐 소목장을 시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임 선생을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한민국 명장이기도 한 임 선생은 민가·사찰 찰초 제작 기능을 익혀 사찰, 한옥 등 다양한 전통 건축물의 찰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그의 전통 찰초는 높은 예술성과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도 작품이 전시됐다.

무등산 주상절리와 매화를 형상화해 민주·인



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꽃살 찰초로 담은 작품이다. /박선경기자



박원중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동참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과 2호 릴레이 기부 이름 올려

전남도의회 박원중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과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호 상호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정철 도의원과 은봉희 남구의원의 1호 상호기부에 이은 것으로 박 의원은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바라며 상호기부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은 ‘전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등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과 형평성에 맞는 담례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기부자들에게 전남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릴레이 기부 3호 주자로 김주용 도의원을 지목했다. /김재정기자

동부경찰, 상반기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 정기회의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동구청, 동부교육지원청,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및 도박, 절도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경찰 추진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따른 기관별 추진사항들이 공유됐다.

또한 향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소년법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정기자



한국농어촌공 담양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담양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제1차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 안건은 공사에서 관리 중인 담양호 상류 오염원, 여름철 늘어난 방문객 및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수질관리 문제점 등이었다.

담양군 환경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지원팀장 및 담양호 수리시설감시원 등의 참여주체

별 역할을 분담하고 담양호 수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사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에 통해 담양호가 수질보전지구로 선정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협조하기로 했다.

김건경 담양지사장은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상류 오염원 관리 및 담양군 관내 저수지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농업인들이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영광경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영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태정마루에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설치된 경찰 자문기구다.

이번 위촉식과 정기회의에는 신규 위촉된 김성진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영광경찰

서 각 과장 등이 참석하며 축하했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관내 대규모·주요 집회 발생 시 자문위원들의 참관과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조언 등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진 자문위원장은 “경찰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장흥경찰, 민·관·경 협업 ‘상반기 지역치안協’ 개최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천관마루에서 민·관·경 협업,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범죄예방과 주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장흥경찰서, 장흥군청, 장흥군의회, 장흥교육지원청, 장흥소방서, K-water 전남세남권지사 등 관내 1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주요 안건은 ▲폐가 안전대책 마련 ▲장흥군 실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심화장실 조성 등 3개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기점으로 장흥군민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안정된 지역 사회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7월 5·18민주유공자’ 故 조봉환씨



7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조봉환(사진)씨가 선정됐다.

1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조씨는 1918년 6월4일 생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8월 영암군 소재 본인의 농장에서 연행된 조씨는 영암경찰서와 보안대를 거쳐 상무대에 수감됐다.

수감 생활 동안 고문과 구타를 당해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은 조씨는 지난 1988년 사망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조봉환씨는 제1묘역 9구역 25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문희준 제47대 동부소방서장 취임



문희준(59·사진) 제47대 광주 동부소방서장이 1일 취임했다.

문 신임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화재 취약 지역인 대인시장과 풍수해 우려지역인 용산동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문 신임 서장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며 “또한 서장 임기중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준비된 책임소방, 든든한 이웃소방, 따뜻한 소통소방’을 목표로 꾸준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소방 안전대책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891년 소방공직에 입문한 문 신임 서장은 광주 서부소방서장,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은정기자

인사

- 광주 북구 ◇4급 승진
 - ▲자치행정국장 홍순애 ▲복지교육국장 류영란
- ◇5급 승진
 - ▲문화동장 직무대리 김방욱 ▲오치2동장 직무대리 김진숙 ▲신용동장 직무대리 박병익 ▲운암1동장 직무대리 배승빈 ▲운암2동장 직무대리 양정대
- ◇5급 전보
 - ▲교통행정과장 김광렬 ▲청소행정과장 이영백 ▲주민자치과장 노희 ▲민원여권과장 최경선 ▲중앙동장 최용철 ▲동림동장 차해경 ▲복지관리과장 김인숙

- 전남개발공사 ◇승진(일반급) ▲안전감사실장 장승호
- ◇승진(일반2급) ▲ESG혁신TF팀장 신창석 ▲오송사업단장 이춘복 ▲기획혁신처 박희수 ▲경영지원처 허진호
- ◇승진(기술3급) ▲오송사업단 박철욱
- ◇전보(일반급) ▲경영기획실장 백철수
- ◇전보(일반2급) ▲주거복지사업실장 김용덕 ▲공공건축사업처장 이한
- ◇전보(기술3급) ▲KIC사업단장 김규환 ▲에너지사업처장 정영주

- 전남연구원 ▲부원장 김현철 ▲상생협력단장 조창완 ▲현안지원단장 김현철(겸임)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철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철(겸임)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우람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종일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장 박용희

부음

▲김정묵씨 별세, 김현성(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현철씨 부친상=발인 3일(수) 낮 12시30분 만평장례식장 202호실(062-611-0000).